

반도체 업황 '장밋빛 실적' 예고... 중동 변동성은 대비해야



/ChatGPT로 생성한 SK하이닉스 HBM 반도체와 AI 수요 확대를 형상화한 이미지.

개인 투자자 직장인 이 모(30)씨는 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를 보고 고민에 빠졌다. 장밋빛 실적과 전망으로 주가가 치솟자 돈을 더 넣어야 할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팔아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해서다. 이씨는 삼성전자 주가가 한창 오르던 2021년 초 '9만 전자'에 올라왔지만, 이후 기약 없는 하락장에 5년을 버텼다. 이씨는 "여기저기서 반도체가 앞으로 더 오를 거라고 해서 일단 들고 있는데 불안하다"고 말했다.

증권가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더 오를 것으로 본다.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인공지능(AI) 수요를 중심으로 호황세가 이어지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이 동반 상승 곡선을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도 높아지고 있다

◆ 실적 등에 업고 반도체 날아
2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삼성전자

삼성전자, 1분기 영업이익 57조
SK하이닉스, 34조8753억 전망

실적·AI 수요에 '매수' 신호 유지
변동성에 포트폴리오 다변화 권유

는 전거래일 보다 0.69%내린 21만4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5거래일 만의 하락이다. 시가총액 2위 SK하이닉스는 3.37% 오른 116만6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장 중에는 117만500원으로 사상 최고가를 갈아치웠다.

장밋빛 실적 기대감이 주가를 밀어 올리고 있다. 삼성전자는 올해 1분기(1~3월) 57조2000억원 규모의 영업 성적표를

발표한 바 있다. SK하이닉스는 1분기 영업이익이 30조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에 주가가 탄력을 받았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증권가의 SK하이닉스 1분기 영업이익 평균 전망치는 34조8753억원이다. 일부 증권가는 영업이익이 40조원을 웃도는 '어닝 서프라이즈' 가능성도 제기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1분기 합산 영업이익이 90조원을 웃돌 수 있다.

2분기 기대치는 더 좋다.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메모리 재고는 1~2주 수준으로, 사실상 바닥 구간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된다. 김동원 KB증권 리서치본부장은 "AI 데이터센터 수요가

전체 메모리 출하의 60~70%를 흡수하며 가격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며 "주요 고객사들이 공급 안정성을 우선하면서 주문 강도 역시 뚜렷하게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의 투자은행(IB)과 증권사는 대형 반도체주에 대한 장밋빛 전망을 내놓고 있다. 씨티그룹은 삼성전자의 올해 연간 영업이익이 31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해 영업이익의 7배를 넘는 규모다. 골드만삭스는 SK하이닉스의 연간 영업이익을 202조 원으로 추정했다. 골드만삭스는 메모리 반도체 업황 개선을 근거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목표주기도 각각 26만원, 135만원으로 제시했다. 맥쿼리증권은 삼성전자 목표가를 34만원, SK하이닉스를 170만원으로 제시했다. 맥쿼리증권은 보고서에서 "과거 중립적이었던 시장에서 메모리 공급 부족 심화에 따른 강한 긍정론으로 선회한다"고 밝혔다. 이어 "범용 DRAM·낸드가 2026년 1분기에 두 배로 상승할 전망"이라며 연중 내내 메모리 반도체 가격 상승 모멘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국내 증권사들은 최근 목표주가를 150만~190만원 수준까지 상향 조정했다.

◆중동발 변동성 경계해야
국내 반도체주에 집중 투자해온 개인

투자자 심 모(35)씨는 결국 지난 16일 보유한 주식의 거의 전량을 매도했다. 지난해 '55만 닉스'에 올라탄 심씨는 "SK하이닉스 주가가 110만원대까지 치솟자 이제는 맘 편하게 처분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도 거침없이 올라가는 SK하이닉스 주가를 보고 "조정 국면에 다시 단타로 들어가야 하나 혼란스럽다"고 했다.

글로벌 반도체 업황은 여전히 '호황'을 가리킨다. TSMC와 ASML은 최근 실적 발표에서 AI·고성능컴퓨팅(HPC) 수요가 소비자용 IT 부진을 압도하고 있다고 밝히며, 선단공정과 첨단 장비 중심의 투자 사이클이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했다. AI 인프라 투자 확대가 자본지출 증가와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지는 구조도 뚜렷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반도체 영업이익과 수출 실적, 세계 인공지능(AI) 수요 등을 근거로 '매수' 신호를 유지하고 있지만, 중동발 높은 변동성을 우려하며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권유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일시적인 증시 변동성 확대에 대한 가능성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metro

지난해 국내 상장사 현금배당 38조 돌파 '역대 최대'

거래소 '12월 결산 배당 현황 분석'
코스피, 총 배당금 35조1000억
밸류업 공시 기업 배당성향 높아

지난해 코스피·코스닥 상장사의 현금 배당이 38조원을 돌파하면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특히 밸류업 공시를 진행한 상장사들의 현금배당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한국거래소는 20일 '12월 결산 현금 배당 법인의 배당 현황 분석'을 통해 코스피 시장에서는 799개사 중 566개사(71%)가 현금배당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총 배당금은 35조1000억원으로 전년(30조3000억원) 대비 15.5% 증가했다. 코스닥 시장의 배당법인 수도 666곳으로 전년 대비 8.8% 늘었으며, 배당금 총액도 3조1000억원으로 34.8% 늘어났다.

코스피·코스닥 각각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이다. 양 시장의 현금배당 합산 총배당금은 38조원을 상회한다.

코스피 시장의 보통주 평균 시가배당률은 2.63%, 우선주는 3.06%로 전년 대비 각각 0.42%포인트, 0.64%포인트 감소했다. 평균 배당성향은 39.83%로 전년(34.74%) 대비 5.09%포인트 상승했다. 현금배당 실시법인의 평균 주가상승률도 지난해 32.90%를 기록하면서 전년(-5.09%) 대비 37.99%포인트 증가했다.

특히 밸류업 공시를 제출한 기업들의 배당성향이 높게 나타났다. 밸류업 공시를 진행한 12월 결산 법인 314개사 중 304개사(96.8%)가 배당을 실시했으며, 총 배당금은 30조8000억원으로 전체의 87.7%를 차지했다. 시가배당률과 배당성향 모두 전체 평균을 상회했다.

같은 기간 고배당 공시를 진행한 255개사의 배당금도 총 22조7000억원으로 전체의 64.9%를 차지했다. 고배당 기업들의 시가배당률과 배당성향도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밸류업 공시법인의 결산 현금배당 총액이 전체 현금배당 총액의 약 88%를 차지하고, 대부분이 고배당 공시법인에 해당해 순이익의 절반을 주주에게 환원하고 있다"며 "밸류업 공시법인이 더 높은 주주 환원을 통해 기업가치 제고 및 국내 증시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평가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평균 시가배당률이 2.637%로 전년 대비 0.108%포인트 상승했고, 최근 5년내 최고치를 기록했다.

평균 시가배당률이 상승하고 국고채 수익률이 하락하면서 평균 시가배당률이

2021년 이후 4년만에 국고채 1년물 수익률(2.433%)을 상회했다. 코스닥 시장에서 시가배당률이 국고채 수익률을 웃도는 법인이 666사 중 288사로 집계됐다.

배당 성향도 높아졌다. 코스닥시장 평균 배당 성향은 37.4%로 전년 34.4%보다 3.0%포인트 올랐고, 최근 5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다.

현금배당을 실시한 법인의 주가 상승률도 크게 높아졌다. 코스닥시장 배당법인의 전년 말 대비 평균 주가 등락률은 26.2%로 집계됐다. 코스닥 지수 연간 등락률 36.5%보다는 낮았지만, 5년 연속 배당법인의 5년간 주가상승률은 18.5%로, 같은 기간 코스닥지수 등락률 마이너스(-4.4%)를 22.9%포인트를 상회했다.

/신하은 기자 godhe@



metro

WGBI 편입 이후 日 자금 유입 늘어

재경부, 도쿄서 국가 투자설명회
韓 국고채 매력적 투자처로 인식

정부가 대한민국의 세계국제지수(WGBI) 편입을 계기로 일본 현지에서 투자 유치에 나섰다. WGBI 편입 이후 일본계 자금의 국내 유입이 늘었다는 집계도 나온다.

재경경제부는 지난 16~17일 이틀간 도쿄에서 FTSE Russell, 연기금, 주요 자산운용사 등 총 9개 기관과 개별 면담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른바 국가 투자설명회(IR)이다.

재경부의 허승철 국고정책관은 투자자들과 만나 "지난달 말부터 일본계를 중심으로 신규 투자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히고, WGBI 편입이 차질없이 진행된 점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

일본 투자자들은 WGBI 편입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추진해 온 제도개선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들은 한국시장의 성숙도와 정부의 시장 선진화 의지에 근거해, 한국 국고채를 매력적 투자처로 인식하고 있다고 했다.

참석자들은 4월 WGBI 편입 개시를 계기로 한국 국고채에 투자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또 오는 11월까지 편입비중 상승에 맞춰 지속 투자할 계획임을 밝혔다.

일부 참석자들은 "아직 국고채 투자 준비단계에 있는 기관들도 있는 만큼, 앞으로 자금유입 규모가 점진적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는 실제 투자 집행 과정에서의 애로사항 및 WGBI 자금유입 효과 극대화를 위한 개선사항 등도 논의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metro

화학산업협 "중동발 나프타 불안 대응... 공급안정 최선"

금호석화·롯데케미칼 등과 입장문

한국화학산업협회가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나프타 수급 차질 우려가 커지자 국내 공급망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부 정책에 협조하고 원료 확보와 설비 가동률 제고를 통해 기초유분과 주요 석유화학 제품의 내수 공급 차질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협회는 20일 중동 지역 분쟁 장기화에 대응해 정부와 공조하고 국내 공급망 안정에 나서겠다는 석유화학 업계의 공동 입장을 공개했다. 이번 입장문은 협회를



나프타에 이어 나프타에서 생산되는 석유화학 원료 7종에 대한 매점매석 금지 및 긴급수급조정조치가 시행된 지난 15일 경기 안산시의 한 종량제 봉투 등 비닐 생산 업체에서 직원이 폴리에틸렌 원료를 점검하고 있다.

중심으로 금호석유화학, 롯데케미칼, LG화학, 한화솔루션, SK지오센트릭 등 주요 석유화학 기업들이 참여해 마련됐다. 협회는 최근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내

산업 전반의 공급망 부담이 커진 만큼 나프타 물량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설비 가동률을 최대한 높여 에틸렌·프로필렌 등 기초유분과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 등 주요 제품의 내수 공급을 우선적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나프타 외에도 LPG, 콘덴세이트 등 대체 원료 확보를 병행해 공급 차질 가능성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보건의료와 생필품, 핵심 산업 소재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필수 품목은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 공급망 관리 강도를 높여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국가 경제의 안정적인 운영을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다.

/원관희 기자 wkh@



metro